국민행복기금 이용자의 근로의욕 제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How to Improve Work Motivation in National Happiness Fund's Users

전 병 주*, 윤 경 미*, 한 애 경**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청주복지재단**

Jeon Byeong-Joo*, Yun Kyeong-Mi*,
Han Ae-Kye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oo Welfare Foundation**

요약

본 연구는 대전, 세종 등의 지역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한 342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만족도,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 등이 근로의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기금 이용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기금의 제도적 보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 서론

2013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와 기업, 정부 등의 국가 부채 총합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2.2배 증가한 3,783조원이다. 이것은 2013년 국내 총생산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85.6%로 나타나 세계경제포럼(WEF)이 가계의 부채 과다를 판정하는 임계치 75%를 이미 넘어섰다.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취직 등을 통해 부채상환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만, 근본대책이 성과를 낼 때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공적 채무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초중반에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현 정부에서도 2013년 3월에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연체채무가 345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24만 9천명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하였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목표 32만 6천명의 76%를 지원한 것이고, 현 정부에서의 공약 목표인 5년간 30만명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지원 실적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제기되었던 '고소득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비판과 달리, 실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1천만원 미만이 56%에 이르고, 평균 채무액이 1천140만원으로 나타나 대부누이 저소득층에 소액 대출자로 파악되면서 공적 채무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국민행복기금 이용자들의 연체율과 중도탈락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행복기금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중도탈락자는 11.4%안 2만 6천여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극빈층의 과도한 부채는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정부의 논리를 토대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행복기금에 의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더라도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대, 적극적 복지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돌려 막기'로 전전하는 채무불이행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근로활동이 반드시 요구됨을 시사한다. 여기서의 자립은 경제거인 탈빈곤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1], 이러한 근로활동의 참여를 통해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근로복지(workfare),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스웨덴의 활성화(activation) 등 전 세계적으로 고용과 복지 간의 연계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2] 고용과 연계된 관점에서 국민행복기금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이용자들의 근로의욕 수준을 살펴보고,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근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

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행복기금의 제도적 보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이용자 342명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5월~2014년 2월에 걸쳐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 우울, 신용에 대한 태도)·가족적 요인(가족 월수입, 가족관계만족도)·사회적 요인(사회적 인식에 대한 지각,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 및 근로의욕 등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근로의욕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t-test, ANOVA 및 scheffe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요인에 대한 척도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은 김동배 외(2013)[3]가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지각은 최주원·김영규(2011)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근로의욕은 정영미·서경도(201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요인 중에서 자아존중감과 신용에 대한 태도는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보통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 요인 중에서 가족관계만족도는 보통수준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요인 중에서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및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 등은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의욕은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 혼인상태의 변화, 건강상태, 채무 주원인, 사인간 채무 유무, 미납세금 유무 등에 의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만족도,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지각, 우울, 혼인상태의 변화, 신용에 대한 태도, 미납세금 유무 등의 순서로 근로의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조사대상자의 근로의욕은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행복기금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고 1년여 지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으므로 근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조사대상자의 근로의욕에는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지각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 집단, 사회에서의 대인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정부정책에 의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 역시 근로의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도 근로의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민행복기금 이용자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함께 그들을 둘러싼 집단 내지 사회 환경적 측면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 영역에서의 변화는 다른 영역에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상호 영향관계가 존재함을 인식하여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연구[5]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국민행복기금 이용자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엄태영, 김동기, 허미경,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지지가 여성 자활근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8권, pp.1-24, 2008.

[2] 유경준, 안상훈, 김대일, 강창희, 황수경, 옥우석, 김혜원,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3] 김동배, 유병선, 이은진, “근로노인의 근로만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노인복지연구, 제60권, pp.201-236, 2013.

[4] 정영미, 서경도, “심리적 계약위반이 근로의욕 및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8권, 제1호, pp.111-128, 2011.

[5] Voydanoff, P., “Work and Family”,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3, pp.1-22. 1988.